

| 이슈페이퍼 2023-03 |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와 시사점

이정원

1. 배경
 2.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3. 정책 제언
- 참고문헌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와 시사점¹⁾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해 육아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기관 이용 보다는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조치로 대응함. 이에 영유아 가구는 부모와 혈연 위주의 인력을 활용한 가정 내 돌봄으로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는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을 크게 위축시켰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를 지나 코로나19 위험성의 감소와 일상회복의 분위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이 다시 회복세를 보임.
- 한편 영유아 돌봄을 위해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을 전후해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중 조부모 및 친인척 등 혈연의 비중이 증가, 돌봄의 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짐.
- 코로나19 발생 초기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및 외부 인력에 의한 육아서비스 이용 축소는 부모 및 혈연에 의한 가정 내 돌봄으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 가구의 양육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가정 내 돌봄의 증가는 주로 여성의 양육 부담으로 전가되었을 수 있어 향후 긴급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 이외의 상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단, 코로나19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는 외부 인력의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긴급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가정 내 돌봄 지원 제도의 상시적인 구축도 필요함. 즉, 부모의 연차 활용처럼 개인적인 대응 보다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정착으로 긴급 돌봄 공백 발생 시에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단, 해당 제도의 설계시 여성 위주의 활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고려가 필요함.

1) 본 글은 이정원·이재희·김지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의 일부를 토대로 작성함.

1 배경

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육아 정책 분야의 대응

■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육아정책 분야의 대응

- ◆ 2020년 전후 전세계적으로 발발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도입되고, 이는 영유아 양육을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침.
 - 2020~2021년 사이 지역별 코로나19 확산세의 강도를 반영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원 및 긴급보육 시행, 밀집도 감소를 위한 조치(원격 수업 전환, 등원 인원 제한 등)가 실시되었음(조숙인·김나영·김재희·김영민, 2021: 196).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함(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 38).
- ◆ 이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강도에 따라 업무 환경의 밀집도 감소,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 공공기관, 기업의 재택 근무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²⁾, 이에 따라 2020~2021년 3월까지 만 25세~54세 직장인의 30%가 재택근무를 짧게라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남(한국갤럽, 2021; 전지원·차승은·은기수, 2022: 28에서 재인용).

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자녀 돌봄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에 대해 영유아 가구에서는 부모 및 혈연 위주 인력에 의한 가정 내 양육으로 대응

2) HIT news(2020. 8. 29.). ‘거리두기 3단계 같은 2.5단계...제약 재택근무 전격 전환?’(인출일: 2023. 5. 24.).

- ◆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도에 실시된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 조사 결과,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맞벌이 가구가 자녀를 돌보았던 방식은 다음과 같음.
 - 1순위 응답 기준 ‘조부모 등 친인척의 개별돌봄’(24.8%), ‘어머니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18.6%), ‘부모 중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13.3%), ‘부모 중 누구든 재택근로 사용’(8.1%), ‘어머니가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7.7%)순이며, ‘긴급돌봄센터 이용’은 8.9%에 그쳤음(최효미 외, 2020: 193).
- ◆ 즉,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영유아 가구는 주로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은 ‘가정 내 대리 양육’, ‘부모의 휴가·휴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한 ‘가정 내 직접 돌봄’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처럼 가정 내 대리양육, 가정 내 직접 돌봄 등 ‘가정 내 돌봄’의 증가는 코로나19 전 영유아 돌봄을 위해 이용하던 육아서비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됨.
- ◆ 이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의 이용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실증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가. 반일제이상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 코로나19 시기별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변화
 - ◆ 2018년~2022년 동안 수행된 I기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율은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3차년도)에 72.4%로 2019년(2차년도) 81.0% 대비 대폭 감소함. 이후 2021년(4차년도)에는 80.5%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1차년도), 2019년(2차년도) 조사 시와 유사한 수준을 회복함. 단, 2022년(5차년도)에는 4차년도 대비 다소(3.1%p) 감소함.(표 1 참조)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영유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1차년도)과 2019년(2차년도)에 각각 18%,19%에 해당함.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3차년도)에는 미이용 영유아가 27.6%로 급증하였는 바, 코로나19 팬데믹이 단기적으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수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임.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은 2021년(4차년도)에 19.5%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3년차에 접어드는 2022년에는 다시 미이용 비율이 다소 증가함.

〈표 1〉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전체	100.0 (2,277)	100.0 (2,333)	100.0 (2,368)	100.0 (2,371)	100.0 (2,393)
어린이집	51.1 (1,163)	53.0 (1,235)	48.1 (1,139)	50.4 (1,196)	49.2 (1,177)
유치원	27.7 (630)	26.5 (617)	23.3 (551)	28.8 (682)	27.1 (648)
반일제이상 학원 등	3.2 (74)	1.6 (37)	1.0 (24)	1.3 (31)	1.1 (27)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18.0 (410)	19.0 (443)	27.6 (653)	19.5 (462)	22.6 (542)

주: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63 〈표 V-1-1〉

■ 코로나19 확산 전후 아동 연령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행태의 변화

- ◆ 아동 연령별로 코로나19 확산 전후 시기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아동 연령별로 코로나19 확산 전후 시기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행태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남.
- ◆ 만2세까지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율이 감소한 후, 코로나19 발발 3년차인 2022년까지 201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
- ◆ 만3세~만6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3차년도)에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2018~2019년)에 비해 급증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을 회복함. 이는 즉, 일상적으로 기관 이용 수요가 영아 보다 높은 유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기관 이용 욕구가 위축되었다 위험성의 감소세에 힘입어 빠르게 기관 이용 수요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연령별 및 연도별 영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2.3 (3)	32.9 (94)	82.9 (283)	94.7 (348)
	2차년도(2019년)	2.0 (3)	24.3 (70)	81.1 (265)	95.2 (356)
	3차년도(2020년)	1.8 (3)	19.9 (57)	70.6 (227)	89.4 (315)
	4차년도(2021년)	1.3 (2)	26.7 (74)	74.5 (238)	90.2 (315)
	5차년도(2022년)	1.3 (2)	27.5 (88)	77.3 (259)	95.7 (379)
유치원	5차년도(2022년)	0.0 (0)	0.0 (0)	0.0 (0)	0.5 (2)
반일제이 상 학원	1차년도(2018년)	0.0 (0)	0.4 (1)	0.7 (2)	1.4 (5)
	2차년도(2019년)	0.0 (0)	0.0 (0)	0.7 (2)	0.9 (3)
	3차년도(2020년)	0.0 (0)	0.0 (0)	0.0 (0)	0.3 (1)
	4차년도(2021년)	0.7 (1)	0.0 (0)	0.0 (0)	0.5 (2)
	5차년도(2021년)	0.0 (0)	0.0 (0)	0.3 (1)	0.3 (1)
반일제이 상 기관 미이용	1차년도(2018년)	97.7 (140)	66.8 (192)	16.4 (56)	3.9 (15)
	2차년도(2019년)	98.0 (141)	75.7 (218)	18.2 (59)	3.9 (14)
	3차년도(2020년)	98.2 (140)	80.1 (231)	29.4 (95)	10.3 (36)
	4차년도(2021년)	98.0 (137)	73.3 (204)	25.5 (81)	9.3 (32)
	5차년도(2022년)	98.7 (154)	72.5 (232)	22.4 (75)	3.5 (14)

주: 1) 해당 연령 전체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수입.

2)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부록, p.433 <부표 V-1-1>

〈표 3〉 연령별 및 연도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비중(2018~2022년)

단위: %, (명)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어린이집	1차년도(2018년)	52.1 (190)	34.1 (125)	29.4 (120)
	2차년도(2019년)	63.3 (254)	40.1 (160)	31.8 (128)
	3차년도(2020년)	55.0 (221)	41.5 (180)	31.8 (136)
	4차년도(2021년)	58.6 (224)	44.0 (191)	32.6 (153)
	5차년도(2022년)	58.3 (221)	43.1 (169)	33.7 (140)
유치원	1차년도(2018년)	41.0 (149)	60.2 (220)	63.8 (260)
	2차년도(2019년)	33.3 (134)	56.7 (226)	64.4 (258)
	3차년도(2020년)	34.5 (139)	43.0 (186)	53.1 (227)
	4차년도(2021년)	40.0 (153)	52.8 (229)	63.9 (300)
	5차년도(2022년)	38.5 (146)	55.4 (217)	62.4 (259)

	구분	만4세	만5세	만6세
반일제이상 학원	1차년도(2018년)	5.1 (19)	5.4 (20)	6.6 (27)
	2차년도(2019년)	2.2 (9)	2.2 (9)	3.6 (14)
	3차년도(2020년)	1.4 (6)	1.6 (7)	2.4 (10)
	4차년도(2021년)	0.5 (2)	2.7 (12)	3.0 (14)
	5차년도(2022년)	1.3 (5)	1.3 (5)	3.4 (14)
반일제이상 기관 미이용	1차년도(2018년)	1.8 (7)	0.3 (1)	0.2 (1)
	2차년도(2019년)	1.2 (5)	1.0 (4)	0.2 (1)
	3차년도(2020년)	9.2 (37)	13.9 (60)	12.7 (54)
	4차년도(2021년)	0.9 (3)	0.5 (2)	0.4 (2)
	5차년도(2022년)	1.8 (7)	0.3 (1)	0.5 (2)

주: 1) 해당 연령 전체 대비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수입.

2)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부록, p.434 <부표 V-1-2>

■ 코로나19 발생 전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 변화

- ◆ 코로나19 발생 전후 시기별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3차년도)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이용시간은 가장 길었고, 2021년(4차년도), 2022년(5차년도)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등 기타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긴급돌봄체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반일제이상 기관의 장시간 이용이 불가피한 아동들로 이용자가 압축되면서 오히려 이용 아동들의 평균 이용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최효미 외, 2020: 140).
- ◆ 즉,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외 가용한 돌봄 자원(인력, 본인의 제도 이용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서는 가정 내 돌봄을 확대하여 대응하였으나, 가정 내 돌봄을 위한 인력,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영유아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반일제이상 기관을 지속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4〉 연도별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평균 이용시간(2018~2021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3차년도(2020년)	4차년도(2021년)	5차년도(2022년)
어린이집	34.9 (1,163)	35.4 (1,235)	37.5 (1,139)	35.0 (1,196)	34.9 (1,177)
유치원	34.4 (630)	34.4 (617)	34.5 (551)	34.5 (682)	34.8 (648)
반일제이상 학원 등	28.3 (74)	29.7 (37)	34.5 (24)	29.5 (31)	35.1 (27)

주: 1) 반일제이상 학원 등에는 '반일제이상 영어학원'과 '반일제이상 기타기관'을 포함함.
 2) 해당 서비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함.
 3) 3차년도 이용시간은 시간표로 조사된 시간을 합산한 값이며, 1차, 2차, 4차, 5차년도는 하루 이용시간에 5일로 곱하여 산출함.
 4) 자료 표의 5차년도 사례수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제시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70. 〈표 V-1-9〉

- ◆ 한편,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던 2020년(3차년도) 조사 결과를 영·유아를 구분해 가구 특성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 서도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 코로나19로 영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던 2020년(3차년도)에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남. 즉, 맞벌이 가구의 부모가 휴가·휴직, 재택근무 등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한 제도 이용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 주로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을 지속함으로써, 이용 아동 내에서 집계되는 반일제이상 기관 평균 이용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 가구특성별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2020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전체(2020)	37.3 (603)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9.9 (288)
	외벌이	34.8 (314)
	<i>t</i>	8.2***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34.8 (37)
	300~399만원 이하	35.1 (114)
	400~499만원 이하	36.8 (189)
	500~599만원 이하	38.2 (106)
	600만원 이상	39.3 (156)
	<i>F</i>	6.4***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41 〈표 V-1-5〉

〈표 6〉 가구특성별 유아의 반일제이상 기관 주당 이용시간(2020년)

단위: 시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등		
전체(2020)	37.9	(538)	34.5	(551)	34.9	(22)	
맞벌이 가구	맞벌이	39.9	(270)	37.5	(258)	33.7	(11)
	외벌이	35.8	(268)	31.9	(293)	36.3	(10)
여부	<i>t</i>	6.3***		7.4***		-1.2	
	299만원 이하	38.0	(36)	33.0	(30)	35.0	(1)
가구 소득	300~399만원 이하	36.0	(109)	33.5	(105)	42.5	(2)
	400~499만원 이하	37.1	(157)	33.4	(170)	33.7	(6)
	500~599만원 이하	39.0	(108)	34.0	(112)	37.6	(2)
	600만원 이상	39.5	(128)	37.5	(134)	33.5	(10)
	<i>F</i>	3.9**		4.7***		1.6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p.159 〈표 V-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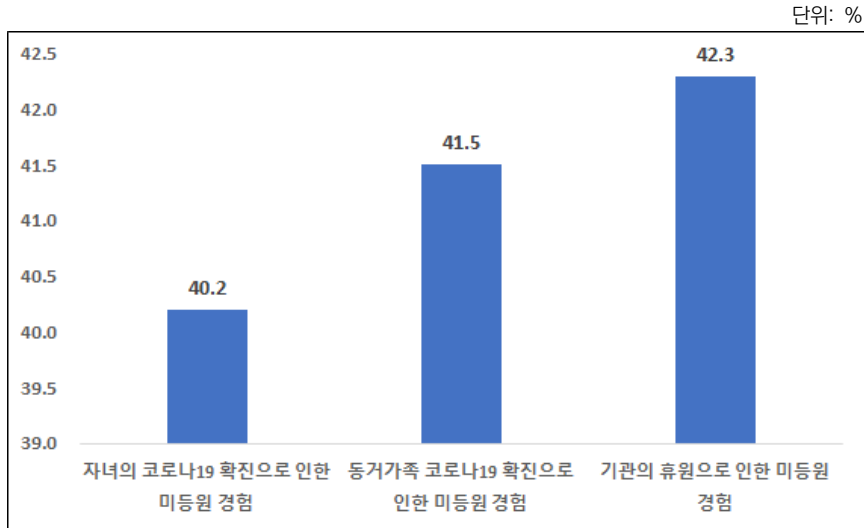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반일제이상 기관 미등원 경험

- ◆ KICCE 소비실태조사 5차년도(2022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반일제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않은 경우³⁾의 미등원 사유와 미등원 일수를 조사함.
- ◆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가구의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1년간 미등원 일수는 평균 21.2일이었음. 이는 곧 평소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던 가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1년 중 21.2일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였음을 의미함.
- ◆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반일제이상 기관을 등원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기관의 휴원’으로 인한 경우가 42.3%, ‘동거가족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경우 41.5%,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경우 40.2% 순으로 나타남.
- ◆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가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이용하던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을 위한 개별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거나, 부모가 직접 돌보기 위한 제도 이용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 단, 반일제이상 기관 미등원 사유 중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경우는 감염 위험으로 인해 외부 인력에게 자녀 돌봄을 위탁할 수 없어 부모 또는 가까운 혈연 위주의 돌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됨.

3) 이는 반일제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미등원한 경우를 의미함.

4) 동거가족에는 ‘부모’도 포함됨

[그림 1]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별 기관 미등원 경험



출처: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82. [그림 V-1-4]

나. 개별돌봄서비스

■ 코로나19 시기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변화

- ◆ 코로나19 발생 전후(소비실태조사 2차년도~5차년도)⁵⁾ 시기별 육아가구⁶⁾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를 살펴봄.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2차년도)부터 발생 후인 2021년(4차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22년(5차년도)에 2021년(4차년도) 대비 다소(0.4%p) 감소하였으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인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 한편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별 이용 비율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코로나19가 최초 발발한 2020년(3차년도) 조사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2차년도)에 비해 조부모, 친인척 돌봄의 비율은 증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5)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항은 1차년도에는 아동별로 조사되었으나, 가구단위로 이용되는 행태를 고려해 2차년도 이후부터는 가구용 조사에서 가구단위로 조사하였음(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 191). 이에 본고에서는 가구용 조사로 실시된 2차년도~5차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음.

6) KICCE 소비실태조사 2~4차년도 조사에는 막내자녀가 초등학교생인 가구를 포함하여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영유아가구'가 아닌 '육아가구'로 지칭함.

- ◆ 조부모와 친인척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은 2020년(3차년도)에 크게 증가한 후 2021년(4차년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조부모의 경우는 2022년(5차년도) 조사에서 2019년(2차년도) 수준과 유사한 68.3%까지로 회귀하였고, 친인척 돌봄은 2021년(4차년도)부터 2019년(2차년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함.
- ◆ 반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은 2020년(3차년도)에 크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즉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3차년도)에는 반일제이상기관 등 집체보육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가정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으나 감염에 대한 위기감이 높고 외부인력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 조부모와 친인척 등 가족의 돌봄 비중이 높아졌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후 코로나19가 지속되며 누적된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와 더불어 확산되는 일상생활의 회복 분위기로 가족 외 육아도우미의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컸던 3차년도에는 자녀의 반일제이상 기관 이용 뿐 아니라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도 모두 감소하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된 자녀 돌봄이 상당 부분 조부모 등 혈연과 가족에게 전가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표 7〉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2019~2022년, 중복응답)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비율 ^{주1)}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별 이용 비율 ^{주2)주4)}				(수) ^{주5)}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차년도(2019년)	9.9	17.1	7.8	68.9	11.9	(193)
3차년도(2020년)	10.4	6.7	5.3	77.3	13.8	(225)
4차년도(2021년)	12.3	16.0	5.9	75.9	8.9	(237)
5차년도(2022년)	11.9	15.6	8.0	68.3	8.0	(206)

주: 1) 해당년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제공자별 중복하여 이용한 가구는 1사례로 봄)/ 조사대상 전체 가구 표본' * 100으로 산출함.

2) 각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비율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답 비율임.

3) 개별돌봄은 개별돌봄서비스로 부모가 아닌 사람(조부모, 친인척,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민간아이 도우미 등)이 가정에서 해당 아동(혹은 가구 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함.

4) 개별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으로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5) 자료 〈표 V-2-1〉의 2, 3, 5차년도 사례수 수정(2, 3차년도 연도별 사례수 뒤바뀜 수정, 5차년도 중복 이용 사례를 1사례로 선택)하여 활용함.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0. 〈표 V-2-1〉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5차년도 조사 결과)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6.8%가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가 바뀐 적이 있다고 응답함.

〈표 8〉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여부(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변화 경험		(수)	
	있음	없음		
전체	6.8	93.2	(20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3	91.7	(157)
	외벌이	2.0	98.0	(49)
	x2	2.3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2. 〈표 V-2-4〉

- ◆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수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6.3%이며, 변화가 있는 경우 동시 돌봄 자녀수가 줄어든 경우(1.5%) 보다는 증가한 경우가 많았음(4.9%).

〈표 9〉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 수 변화(2022년)

단위: %, (가구)

개별돌봄서비스 동시 돌봄 자녀 수 변화 경험			(수)
돌봄 자녀수 늘어남	돌봄 자녀수 줄어듦	변화 없음	
4.9	1.5	93.7	(206)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3. 〈표 V-2-5〉

- ◆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15.0%에 해당하였음. 변화가 있는 경우 대부분(13.1%)이 이용시간이 증가함.

〈표 10〉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2022년)

단위: %, (가구)

구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변화			(수)	
	이용시간 증가	이용시간 감소	변화 없음		
전체	13.1	1.9	85.0	(20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14.6	1.3	84.1	(157)
	외벌이	8.2	4.1	87.8	(9)
	x2	2.8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3. 〈표 V-2-6〉

- ◆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의 변화를 겪은 경우는 7.3%이며, 이중 대부분은(5.8%) 비용이 증가한 경우였음.

〈표 11〉 코로나19로 인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2022년)

단위: %, (가구)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변화			(수)
비용증가	비용감소	변화 없음	
5.8	1.5	92.7	(206)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203. 〈표 V-2-7〉

-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행태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1인이 돌봐야하는 아동수의 증가, 이용시간의 증가, 비용증가 등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부담이 증가하는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 코로나19 시기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정도 변화

- ◆ KICCE 소비실태조사 2021년(4차년도), 2022년(5차년도) 조사에서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 정도를 살펴봄.
- ◆ 2021년(4차년도), 2022년(5차년도)에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4차년도 대비 5차년도에 부, 모 모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은 증가함.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용 경험 비율은 2021년(4차년도)보다 2022년(5차년도)에 오히려 감소함.

〈표 12〉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경험(2021~2022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출산휴가	6.7	8.9	13.6	15.9
육아휴직	2.8	3.6	18.6	2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	0.8	6.7	5.8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04. 〈표 III-3-15〉

- ◆ 2022년(5차년도) 조사 결과 가족돌봄휴직 이용은 아버지 0.5%, 어머니 1.0%로 4차년도(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도 감소함. 가족돌봄휴가는 5차년도 조사에서 아버지 2.1%, 어머니 4.2%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4차년도 조사 대비 증가함.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는 5차년도에만 아버지 0.6%, 어머니 1.5%가 이용하였으며, ‘가족돌봄휴직’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이용율은 매우 낮지만, 본 제도들은 코로나19 시기에 맞물려 도입되고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임.

〈표 13〉 부모의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등 이용 경험(2021~2022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가족돌봄휴직	1.0	0.5	2.1	1.0
가족돌봄휴가	1.9	2.1	3.1	4.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0.6	-	1.5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05. 〈표 III-3-17〉

-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은 2022년(5차년도)에 2021년(4차년도) 대비 거의 모든 유형의 유연근무제도 이용이 줄어들음. 유연근무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휴원 및 학교의 휴교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음⁷⁾. 따라서 2022년에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의 휴원·휴교가 없어 다시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단, 유연근무제도는 단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취업한 부모의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의 수월성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활용이 아닌 일상적인 정착과 재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7) 이투데이(2020. 2. 25.). 코로나19 ‘심각’ 대응...이커머스 업계, 재택근무 확산
<https://www.etoday.co.kr/news/view/1861492>(인출일: 2023. 6. 23.)

〈표 14〉 부모의 유연근무제도 이용 경험(2021~2022년)

단위: %

구분	아버지		어머니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재택근무	11.3	10.5	14.5	12.6
시차출퇴근	4.0	3.5	6.5	4.6
선택근로제	2.1	1.7	2.7	3.2
원격근무	3.5	2.1	3.3	3.0
전환형시간선택제	0.7	0.2	1.9	1.0

자료: 이정원 외(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p.106. 〈표 III-3-19〉

3

정책 제언

- ◆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돌봄 공백의 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상시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긴급 상황·재난 상황에서의 기관 돌봄서비스의 대응 강화
 - ◆ 코로나19 발생의 사례에서 부모 취업 등 긴급한 돌봄 공백 발생시 휴가, 휴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한 가정 내 돌봄으로의 전환으로 대응이 어려웠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됨. 이 경우 반일제이상 기관도 장시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 ◆ 가정의 인적 자원과 근로 환경의 특성에 따라 가정 내 돌봄으로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영유아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 기관에서도 휴원·휴교 조치 이외 긴급·재난 상황의 단계별 대응 체계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함.
 - ◆ 위기 상황의 유형과 기관 돌봄의 가능성, 적절성 정도를 고려한 세분화된 대응 메뉴얼 마련과 콘트롤 타워의 상시적 운영이 필요함.
-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목적성 휴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 KICCE 소비실태조사 1~5차년도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양육 형태와 육아서비스 이용을 비교한 결과 긴급 돌봄 상황 중에서도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의 경우 결과적으로 외부 인력에 의한 개별돌봄서비스, 집단보육서비스 보다는 부모 등 혈연 위주의 가정 내 돌봄으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음.

- ◆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 영유아 가구들은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가장 희망하며, ‘부모 직접 돌봄’의 방식으로서는 육아휴직 같은 중장기의 휴직을 사용하기 보다는 긴급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한정된 일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휴가’의 형태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즉, 전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해서는 부모의 연차 등을 활용한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같은 특수 목적성의 휴가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족돌봄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가 사용 일수의 연장’ 및 ‘비용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임.

■ 재택근무의 일상적 제도로의 정착

- ◆ 업무와 자녀 돌봄을 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하여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일상적인 제도로의 정착이 필요함.
- ◆ KICCE 소비실태조사의 결과 4차년도(2021년) 대비 5차년도(2022년)의 각 유형별 유연근무제도의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되었던 ‘재택근무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되면서 다시 이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⁸⁾.
- ◆ 그러나, 재택근무제도와 같은 유연근무제도는 단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돌봄 상황에서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육아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라도 일상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지원임. 항상 시간이 부족한 취업 부모에게 가장 유용할 수 있으나 더불어 모든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발표한

8) 중앙일보(2023.04.10.). “이제 회사 출근하세요”...재택근무 ‘멸종 위기’ 곳곳 신경전.(인출일: 2023. 5. 24.)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이행력 강화’,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23. 3. 28.)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휴가나 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근로와 돌봄을 조절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적합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으로 증가한 가정 내 양육 의 부담과 이와 관련한 그림자비용에 대한 고려 필요.
 - ◆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의 휴직, 무급휴가 등의 이용을 통한 소득의 감소나 경력 단절, 취업 포기 등 간접적 비용 발생, 저비용의 조부모 돌봄 의존 현상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를 통해 이러한 그림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긴급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휴가, 휴직, 재택근무 등의 활용에 있어 성별 격차와 그에 따른 여성의 양육 부담 가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남성의 제도 이용과 긴급 돌봄 역할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I 참고 문헌 I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2023. 3. 28.).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전지원·차승은·은기수(2022). 코로나 19 시기 재택근무가 남녀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에 미친 영향. 한국인구학, 45(3), 27-50.

조숙인·김나영·김재희·김영민(2021).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국제비교.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Ⅲ).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갤럽(2021). 직장인 조사 2021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갤럽리포트.

[뉴스·신문기사]

이투데이(2020. 2. 25.). 코로나19 '심각' 대응...이커머스 업계, 재택근무 확산
<https://www.etoday.co.kr/news/view/1861492>(인출일: 2023. 6. 23.)

중앙일보(2023.04.10.). "이제 회사 출근하세요"...재택근무 '멸종 위기' 곳곳 신경전.(인출일: 2023. 5. 24.)

HIT news(2020. 8.29). '거리두기 3단계 같은 2.5단계...제약 재택근무 전격 전환?'.(인출일: 2023. 5. 24.).